

하나님 나라의 선포 (1:14-20)

(개역개정)

¹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¹⁵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¹⁶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¹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¹⁸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¹⁹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²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새번역)

¹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¹⁵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¹⁶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¹⁷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¹⁸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¹⁹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깎고 있는 것을 보시고, ²⁰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의 사역은 세례자 요한의 공생애가 끝난 시점에 시작

예수와 요한 각각에게 맡겨진 사역의 시기와 임무가 있다는 마가복음의 숨겨진 뜻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넘겨진다.(1:4, 14)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고 넘겨진다.(1:14, 9:31)

크리스천이 복음을 전파하고 넘겨진다.(13:9, 10)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활동 범위가 겹친다. 눅 7:18-35 참고)

“갈릴리”

마가복음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임을 강조한다(cf. 1:9).

: 갈릴리는 팔레스틴 북부, 요단강 서쪽을 지칭하는 지역의 이름.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 중 티베리아가 건축되기 전

그 지역의 수도였던 세포리스를 비롯하여,

가나, 카데쉬, 나사렛, 가버나움 등이 빈번히 언급)

마카비 I 서 5장 15절이 보여주듯이,

갈릴리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곳은 흔히 ‘이방인들의 갈릴리’로 불리었다.

이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과 율법의 준수를 고수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 멸시 당했다.

ex.)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요 7:42),

“또는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못했다”(요 7:52)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전한 복음을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요약

(1) 하나님에 대한 복음(목적어의 소유격)

(2)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펼치시는 복음(주어의 소유격)

↓

예수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구원의 복음이며,

그러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는 복음

15절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을 네 문장으로 나누어 보도

(1) “때가 왔다.”

때 = not 물리적인 시간(크로노스), but 결정적인 시간(카이로스, καιρός)

이 ‘때’ =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약속한 ‘그 때’,

역사의 절정으로 치달아 하나님이 온전히 우주의 주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때’

(2)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마태복음에서는 완곡어법 ‘하늘나라’)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모두에서 핵심적인 예수의 선포 주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나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저 세상을 뜻하지 않음

하나님의 나라(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통치’(reign, rule)를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 또 그 다스림이 열어놓은 복된 상태

예수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한다.

‘가까이 왔다’는 현재 완료형이다.

이미 실현되기도 하였고(already), 아직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하다(not yet).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화되는 곳이 있는 한 편(already),

미래에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오고 있는 중(not yet)

이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 황제의 통치’에 대칭이 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는 로마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반응

1) 일반 백성

종교/정치 지도자들의 폭정과 착취에 수탈당하던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cf. 11:18)

2)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3:6)



예수 운동은 당시 지배체제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

마가가 본 예수는 이들에 의해 배척을 받고, 결국 이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3)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회개 & 복음에 대한 믿음)

회개(μετάνοια)

=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의미보다 크다)

= 자기 전 삶의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을 향해 조율하는 일

(to change one's way of life as the result of a complete change of thought and attitude with regard to sin and righteousness)

(4) “복음을 믿어라.”

복음 =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소식

하나님이 반드시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을 결코 암흑 속에 버려두지 않고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는 삶 VS 불의와 타협하는 삶 ← 본질적인 차이!)

16-20절은 예수가 네 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

16-18절: 시몬(베드로)과 안드레

19-20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스승(예수)이 네 제자를 부름 - 당시 지중해 세계의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옴)

↑

이스라엘의 지혜전승(잠언 1:20이하)

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21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22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

16절

“갈릴리 해변” - 공간적 배경: 또 다시 “갈릴리”가 언급된다(cf. 9절, 14절).

(천대받는 장소)

↓

천대받는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 받은 두 사람은 갈릴리 해변에 살고 있었던 “어부”였다.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계층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먼저 초대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

“사람을 낚는 어부”

1) 구원의 의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선교 활동과 관련

2) 심판의 의미: 구약성서에서는 주로 심판의 의미로 사용(cf. 렘 16:16; 암 4:2)



이중적 의미(구원과 심판)가 들어있는 표현이다.

18절

“그들” = 시몬(베드로)과 안드레

“곧”

고민이나 주저함 없음

“그물을 버리고”

어부가 그물을 버리는 것 = 생계활동의 포기



이전의 삶과의 완전한 결별(cf. 1:15 “회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름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전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급박하고 급격하고 급진적인 변화)

그런데 왜?

19절

예수가 두 번째로 부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역시 어부였다.

예수가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갑고” 있었다.



그물을 손질하여 고치는 행위

(καταρτίζω = 갑다, mend, restore, make complete)



다음 낚시를 위한 준비

= 지금껏 살아온 대로 앞으로 살아갈 준비

20절

예수가 그들을 부르니,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급진적인 혈연적 단절

당시 혈연관계(가족)는 사회적 신분(사회적 계급)을 의미



혈연관계의 단절은 사회적 정체성의 포기과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의미